예술로 지키는 잊지 않겠다는 약속

학동 참사 4주기 추모극 '오늘까지만 살아있는 사람'

6~8일 동구 씨어터연바람서 극단 밝은밤, 네 번째 추모작
판타지 결합·새로운 캐릭터 등 "참사 반복되는 사회에 경종"

문화예술은 여가생활에서의 향유 외에도 참사나 비극적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는 힘을 지녔다. 과거를 되새기는 건 단순히 기억하는 행위를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다짐이다. 예술이 사회의 고통에 응답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를 단단하게 전달할 공연이 열린다.

올해 광주 학동 참사 4주기를 맞아 청년 예술가들로 구성된 극단 밝은밤이 추모 창작극 '오늘까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6일부터 8일까지 동구 소극장 씨어터연바람에서 선보인다.

이 작품은 4년 전 광주 동구 학산빌딩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참극을 배경으로 한다. 참사를 단지 과거의 기억으로 묻지 않고,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다.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산빌딩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9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은 학동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이번 공연은 참사 이후에도 하청과 재하청, 불법 하도급과 철거 계획 무시 등으로 인한 비극이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무너진 건물만큼이나 무너진 사회의 감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기획됐다.

작품은 사람이 죽은 후, 잠시 머무는 공간 '어중'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이승도 저승도 아닌 이곳은 기억과 감정이 교차하는 경계의 세계로 단 하나의 선택권이 주어진다.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순간을 선택하면, 잠시 돌아갈 수 있다.

죽었을 당시의 기억을 잃은 해찬과 성철은 어중 기억 상담 네트워크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버려진 물건에서,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구성했던 '진짜 순간'을 찾아 나선다.

광주 학동 참사 4주기를 맞아 극단 밝은밤이 추모 창작극 '오늘까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오는 6~8일 동구 소극장 씨어터연바람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학동 참사 3주기 추모극 '덩달아 무너진 세상' 공연 모습. 극단 밝은밤 제공

극단 밝은밤은 매년 지역 기반의 추모 공연을 개최하며 학동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지난 2022년 첫 추모작 '덩달아 무너진 세상'을 시작으로 매년 공연을 통해 참사를 기억하고 있다. 올해 네 번째 추모 공연에서는 새로운 스토리와 인물 구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추모극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선보인 '덩달아 무너진 세상'과 이번에 첫선을 보일 '오늘까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캐릭터 분배와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다. 전작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학동 참사 희생자들을 중심으로 다뤘다면 이번 작품은 판타지 감성을 활용한 '어중'이라는 독창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여러 서사를 녹여낸다. 딸을 잃어버려 '어중'을 떠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선, 어린 나이에 병을 앓고 자신의 행복한 기억을 찾지 못하며 방황하는 유훈, 어중을 관리하는 사자와 그를 돕는 신비한 존재들까지 판타지적 요소와 독창성 있는 캐릭터를 곁들였다.

참사의 재현을 넘어 살아남은 이들,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억, 잊힘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책임의 공백을 복합적으로 녹여낸 서사가 관객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단 밝은밤 단원들의 깊이 있는 감정선과 캐릭터 서사는 피해자 개인의 삶과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그려낼 전망이다.

지역 문화예술계도 극단 밝은밤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 사회적 기억을 문화적으로 확장하고 지역 공동체의 상처를 예술로 어루만지는 시도는 지역 기반 예술단체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기 때문이다.

극단 밝은밤 관계자는 "참사 이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머릿속에서 점차 잊히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두렵다.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억의 방식은 '지속성'이다"며 "연극을 통해 억울한 죽음을 사회가 기억하고, 유가족의 상처에 위로가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에 관한 예매 및 자세한 정보는 극단 밝은밤 공식 SNS 채널이나 씨어터연바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2025 여수 K 메가 아일랜드 페스티벌(KMIF)에 출연하는 아티스트. KMIF 조직위 제공

'2025 여수 K-메가 아일랜드 페스티벌' 2차 라인업 공개

내달 26일 개막… K-팝·푸드 등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2025 여수 K-메가아일랜드 페스티벌(KMIF)'에 국내 대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한다.

KMIF조직위원회는 2일 YB, 베이비복스, 아프리카, 소란, 백호, 빅스 켄, 적재, 폴킴, 펜타곤 정우석 밴드, 피프티피프티, 드래곤포니, 뉴비트 등을 포함한 2차 라인업을 발표했다.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밴드 YB는 '나는 나비' '사랑했나봐' 등의 히트곡으로 국민 밴드로 자리잡았으며, 최근 메탈 장르까지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1990년대 대표 걸그룹 베이비복스는 보컬·댄스·랩을 아우른 완성형 아이돌로 전성기 히트곡들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하드록 밴드 아프리카, 감성 밴드 소란, 뉴이스트 출신 백호, 빅스의 메인보컬 켄, 싱어송라이터 적재, 감성 발라더 폴킴도 이름을 올렸다. 펜타곤 정우석은 록 밴드와 함께 솔로 무대를 선보이고, 피프티피프티와 뉴비트, 드래곤포니 등 신예 아티스트들도 무대를 꾸민다.

앞서 1차 라인업에는 god 손호영·김태우 유닛 호우, 이승기, 하성운, 이무진, 박장근, 십센치, 카더가든, 몽니, FT아일랜드, 루시, 범진 등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25 KMIF'는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여수 엑스포장과 스카이타워 해안 일대에서 열린다.

행사는 K-팝, K-트로트, K-재즈, K-밴드, K-푸드 등 K-콘텐츠 전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 문화축제로, 매일 새로운 무대와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조직위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전남 K-콘텐츠의 세계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티켓 예매와 세부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추후 공개된다.

최동환 기자

침수 사태 겪은 도서관서 회복 그리다… '사사로운 사서'

14~15일 ACC 예술극장 극장1 도서관·책 통해 시대 변화 탐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도서관 사서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2일 ACC는 창·제작 공연 '사사로운 사서'를 오는 14~15일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 공연은 'ACC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 사업으로 제작됐다. 이는 동시대 아시아 현상을 동양적 사유로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ACC의 창·제작 사업으로 지난해 푸코의 계보학에서 착안해 올해 주제를 '사물의 계보'로 정했다.

공연에 앞서 주제를 심화하고 극장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 보는 시도를 담았다.

지난해 낭독회 형식의 시범공연 후 전문가와 관객 평가를 거쳐 올해 본 공연으로 제작된 '사사로운 사서'는 '도서관'과 '책'이라는 사물의 쓰임과 가치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탐구하는 드라마 연극이다. 작품의 연출을 맡은 강현주씨는 '2023 DAC 아티스트(두산아트센터 선정)'로 활동하며 전작에서 극작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해 올해 '사사로운 사서'를 통해 본인만의 극작 세계를 구축했다.

작품은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연극으로 도서관 장서들이 침수 사태를 겪으며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의 '회복'과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상황을 맞은 인물이 개인의 오랜 부재를 마주하는 과정의 '회복'을 그린다.

이번 공연은 13세 이상 입장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다. 오는 14일에는 오후 3시와 7시에, 15일에는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다.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특별 할인이 적용되며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진도서 풍류 즐기자"…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11일 진도 옥주골 창작소서 강의자로 송현민 음악평론가

국립남도국악원은 2025 상반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의 일곱 번째 무대로 송현민(사진) 음악평론가를 초청해 선보인다.

2일 국립남도국악원에 따르면 이번 음악회는 11일 오후 7시 전라남도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개최된다.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초청해 인문학과 국악을 접목한 강의형 공연이다. 11일 강의자로 나서는 송현민 음악평론가는 '악기 소리 따라가니, 진도의 문화가 보인다!'를 주제로 이야기할 예정이다.

송현민 평론가는 월간 '객석'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국악방송 'FM 국악당' 진행자도 맡는 등 우리 음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제13회 객석 예술평론상 수상,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유공자 표창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지녔다.

이번 공연을 통해 그는 '바다를 담은 글과 파도를 일으키는 피리 소리'에서 소설가 김훈의 '자전거 여행', 이순신의 '난중일기' 등을 들려주며 '화폭과 음악에 담긴 동양적 이상향과 아름다움'을 주제로 소치 허련의 이야기, 이어 '대금산조 맛집 진도의 명물 '박종기 대금 상차림'을 주제로 박종기 명인의 이야기까지 다채롭게 꾸밀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창작악단의 단원을 역임했던 김성준 피리 연주자와 류근화 대금 연주자가 함께한다. 이 둘은 현재 각각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와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며, 미취학 아동은 입장이 제한된다. 공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 30명까지 전화로만 접수를 받는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http://jindo.gugak.go.kr) 또는 장악과 전화(061-540-4038)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상반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이달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된다.

박찬 기자